



My name is Sister Jon (pronounced Joan) Frances Vallade. I was born in Altoona, PA the oldest child of John and Dorothea. I have 4 brothers and 2 sisters. Our parish was the Cathedral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Originally it was known as St. John's Church when the Sisters of Charity arrived in Altoona in 1870. I graduated from Altoona Catholic High School in June 1958 and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58. My parents always supported me in wanting to be a Sister of Charity. From the



first day I met Sister Agnes Geraldine Euler in first grade I wanted to be just like her. I was always playing school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I graduated with a BA from Seton Hill University, a Masters as a Reading Specialist and Clinician from Clarke University in Dubuque, Iowa and my Principal certification from Duquesne University. I taught first grade for 23 years and loved every minute being with the children. Little children are so special. We worked hard and we had fun. Just to



see them blossoming is God's great gift. The following 26 years I was a Principal at various schools. Yes, I miss teaching and interacting with the students but now I love working for our Sisters.

In 2006 while recovering from a total knee replacement at Caritas Christi I was asked if I could help Sister Barbara Mary Koval, Insurance coordinator, to file some papers. Unknown to me at that time Sr. Barbara Mary was ill and wanted to retire. Sure I could file papers and within a few weeks I was asked if I would be willing to do the job. I hesitated because I had absolutely no experience or



understanding of insurance. Is God calling me to a new ministry? I accepted. However, Sr. Barbara Mary went to heaven shortly after I accepted the job and all her experience and knowledge went with her. It was learning on the job. I am so happy to help each Sister in a small way. I know each Sister appreciates me and prayers are always coming my way. I rely on God's help each day and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make sure each Sister has the best insurance coverage. The following year the Social Security job was added to my position.



저는 존 프란시스 벨레이드 Jon Frances Vallade 수녀입니다. (발음할 때는 조운 Joan 이라고 해요.)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에서 아버지 존 John, 어머니 도르티아 Dorthea 슬하에 첫째로 태어나 형제 넷과 자매 둘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성체 대성당 Cathedral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에 다녔어요. 성체 대성당은 사랑의 수녀회가 1870 년 알투나에 처음 도착한 곳으로 원래는 성 요한 성당 St. John's Church 이랍니다. 저는 1958 년 6 월에 알투나 가톨릭 고등학교 Altoona Catholic High School 를 졸업하고, 1958 년 9 월 8 일에 입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랑의 수녀가 되고 싶은 저의 꿈을 항상 지지해 주셨어요. 1 학년 때, 아그네스 제랄딘 울러 Agnes Geraldine Euler 수녀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저는 아그네스 수녀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저희 남매들은 항상 학교에서 놀았지요.

씨튼 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이오와주 두부크에 있는 클라크 대학교 Clarke University, Dubuque, Iowa 에서 독서 전문가 및 치료사 Reading Specialist and Clinician 로 석사학위를 받고 듀케인 대학교 Duquesne University 에서 교장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3 년 동안 1 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 모든 순간이 정말 좋았어요.



작은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지요.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는 일은 하느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26 년 동안은 여러 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무척 그리워요. 하지만 지금 우리 수녀님들을 위해 일하는 사도직도 좋아합니다.



2006 년, 양쪽 무릎 수술을 하고 까리타스 크리스티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안, 수녀회 보험 관련 담당자인 바바라 메리 코벨 Barbara Mary Koval 수녀님이 하는 서류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바바라 메리 수녀님이 아파서 은퇴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물론 저는 서류 일을 할 수 있었고, 수도회에서는 다시 몇 주 안에 저에게 그 사도직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요. 사실, 그 때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사도직으로 나를 부르시는 걸까?



결국, 저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응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바라 수녀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그 일에 대해 배우는 중이었는데 수녀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 전해 받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 수녀님들을 도울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수녀님들이 저에게 고마워하고, 기도로 늘 저의 길에 함께 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매일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우리 수녀님들이 가장 좋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